♦〈신년잡문〉

평점 ★ 몇 개 줄까?

2003년 3월19일, 폭스 TV 애니메이션 〈심슨 가족〉 프로그램에 부동산 재벌 트럼프가 대통령 캐릭터로 등장한다. 불명예스럽게도 미국 경제를 파탄시킨 대통령으로 묘사된다. 트럼프를 망가진 대통령으로 설정한 작가의 16년전 코믹한 상상력이 오늘의 현실이 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작가는 맷 그레이닝이다. 2015년 11월 19일, 영화 〈내부자들〉이 개봉되자 스크린에 정치인, 검찰, 언론인이 등장한다. 이들 집단의 수치스럽고 탐욕스러운 천박한 이야기가 얽히고 설키게 묘사된다. 우리사회의 비리와 부패의 연결고리를 적나라하게 파헤친 1년전 영화가 오늘의 현실과 닮은꼴이 되었다.

이 영화의 시나리오는 웹툰 작가 윤태호의 원작이다. 만화나 영화나 한 시대상을 반영하는 대중문화의 매개물이다. 이 매개물로 대통령 트럼프와 내부자들을 현실로 이끌어낸 두 작가의 예지력이 어쩌면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서보다 평점이 높은 것 같다. 대한민국 서열 1위 최순실이라는 설이 농담이 아닌 농단으로 바뀔 때 또 한 번 데자뷰가 찾아왔다. 5년 주기로 찾아오는 역대급 대물림 앞에 정치권, 검찰, 언론계는 하이에나 복면을 쓰고 무대 위에 섰다. 국민 판정단으로 부터 별 다섯개 평점을 받기위해... 하늘에서 뚝 떨어진 태블릿 PC의 선점을 놓친 동업자들은 피튀기는 양파껍질 벗기기 전쟁을 치루며 검증되지 않은 사실과 뜬 소문까지 용감하게 까발린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미명아래 별 시시콜콜한 얘기를 쓸어담고 있다. 언론 동호회 왼팔 투수는 조지일관 강속구를 뿌려댔고 오른팔 정통파 투수는 갑자기 주무기를 변화구로 바꾸었고 새장 속 자신의 망가진 대통령 캐릭터의 허물을 벗을 때 그 캐릭터는 유령이 되어 한국으로 건너왔다. 그리고 촛불에 놀란 유령은 피신했다. 민주시민으로서 좌파든 우파든 자신의 의견을 개진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한편, 모히또가서 몰디브 한 잔을 즐기고 있던 이병헌은 제작자로부터 긴급 호출을 받는다. "지금와서 〈내부자들 2〉를 만든다고요, 이미 현실이 보여줄 것을 다 보여준 마당에 흥행이 되겠습니까, 감독님도 있는 돈 까먹지 말고, 몰디브 한 잔 하러 모히또 오세요." 이 글은 작가 미상이다.

사 | 우 | 동 | 정

맹형규(보도) 지난해 10월 재능기부단체 공공나눔 조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이 단체는 자원봉사 형태로 재능 기부하는 퇴직 공직자들의 사회 공헌 프로젝트다.

허원제(보도) 지난해 11월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임명됐다. 허사우는 18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홍성완(제작) 지난 12월 중앙미디어 그룹 인사에서 JTBC 플러스 총괄 사장 겸 스포츠 연예부문 대표로 임명됐다.

배성례(보도) 지난해 11월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임명됐다. 배사우의 홍보수석은 임명은 SBS 출신으로 4번째다.

유자효(보도) 지난해 10월 전준엽화백과 만든 동시화집 스마트 아기 출판기념 동시화전을 일조원 갤러리에서 열었다.

하금열(보도) 지난 12월 13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행해 미국 LA서 열리는 화더 경제포럼에 참석했다.

〈협찬금 내신 분〉

강찬용 (20만원)

김세웅 (30만원)

박정훈 (100만원)

배철호 (30만원)

서인준 (20만원)

신중섭 (3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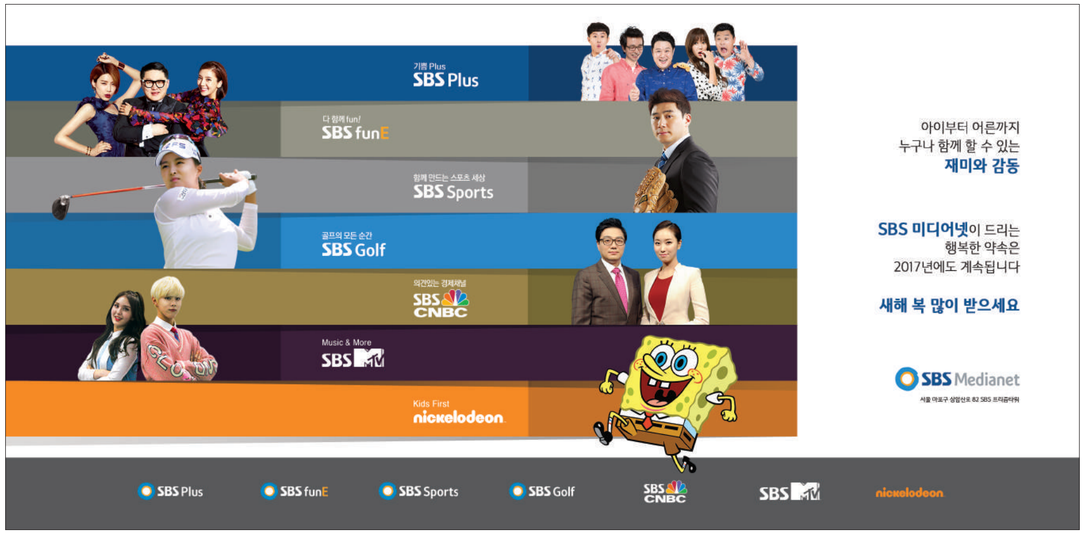
한만균 (20만원)

SBS 조직 개편 단행

본사는 콘텐츠 경쟁력 강화 보도부문 공정성 담보 일관성 있는 의사결정 구조 확립을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 했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미래전략실과 경영지원본부를 경영본부로 통합하고 5본부 5실/센터4국 70팀/부/EP/CP에서 5본부 4실/센터3국 69팀/부/EP/CP 체재로 개편 되었다. 주요임원 인사는 다음과 같다

*경영본장 김희남 * 보도 본부장 김성준
*경영부본부장 최상재 *보도국장 정승민

닭띠 해 정유년 새벽 알람 시계가 울렸다. 도시에 살면서 닭우는 소리 듣기란 힘들다. "여보슈 나는 매일 알탉 우는 소리를 듣고 있소" "당신 귀는 그 잔소리가 따갑지도 않소" " 어떡해요 삼식이 하려면...." 먹는 얘기가 나왔으니 동물 먹이로 너머간다. 대부분의 동물들은 서열이 높은 우두머리가 먼저 먹이를 차지 하지만 닭은 서열이 낮은 놈이 배불리 먹을 때까지 주위를 경계해주고 맨 나중에 먹는다. 이외수의 생존법 하악하악 중에 나오는 글이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작가가 닭을 자세히 관찰해 옮긴거니까 믿고, 그 다음 대목을 보면 머리가 나쁜 사람을 닭대가리로 비유하는데 누가 이런 비유를 한 건지 모르지만 먼저 먹으려는 인간의 탐욕을 닭 앞에서 부끄러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탐욕, 탐욕이 빚어낸 참사(?) 이걸 밝히고 정리 한다고 올해도 시끄러울 것이다. 순실이가 진실이로 개명 하면 어리석은 탐욕의 끝이 밝혀질까? "여보슈 팬들이 촛불 들어요, 그 예쁜 최진실을 그 상판때기에 견주다니"



SBS 사우회보
www.sbssau.co.kr
SBS 사우 3대 덕목
서로 이해하는 마음
서로 존경하는 마음
서로 배려하는 마음
2017년 1월 1일 제 41호
발행처 사단법인 SBS사우회 발행인 김수웅 편집인 박동주 주소 0733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7길 22, 605호(태양빌딩) TEL 02)783-0590~1 FAX 02)785-9805

▲ 새 날이 열리는 빛 정유년 닭띠 해 SBS사우회 사우님들의 만사형통, 희망의 빛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 수묵화 동호회 작품 –

새로운 시작을 위한 꿈

사우회 자립기반 조성

2017년 정유년 새해, SBS 사우회도 새로운 도약을 위한 희망의 나래를 활짝 폈다. 지난해 창립 10주년의 결실을 거두고 또 다른 10년의 시작, 원년을 맞이한 사우회는 재정 자립기반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김수웅 사우회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사우회 안정적 자립은 곧 사우회의 미래다' 라며 이를 위해 500여 사우들과 함께 열심히 뛰는 2017년을 다짐 했다.

특히 지난해 출범한 사우회 재능 봉사단이 추진 하고 있는 지역유대 문화예술 관광사업 활성화는 수익 창출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재능 봉사단은 올해 가평 인터렉티브 아트뮤지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새로운 로드맵을 구상중이며 전남 곡성군 문화예술 관광사업 참여도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사우회는 제반 경제 여건이 어려워도 올해 예산을 축소하지 않고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호회 활동비를 지원하고 사우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복지향상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사우회는 또 사우들의 연중 행사중 참여율이 가장 높은 야유회도 봄 가을로 나누어 두 차례 갖고 안보견학과 산업시찰도 실시할 예정이다.

SBS 사장 박정훈 취임

SBS 박정훈 부사장이 지난 달 SBS 대표이사 사장으로 취임 했다. 박 신임 사장은 1991년 SBS에 입사해 예능국장,제작본부장 드라마 본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장 일선 PD 재직시에는 '그것이 알고 싶다'를 연출하고 '잘먹고 잘 사는법' 책을 출간한바있다. 한편 SBS는 박 사장 취임과 함께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도부문의 공정성을 담보하며 일관성 있는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조직개편과 인사를 단행했다. (관련 기사 4면)

너 섬 나 섬

▲ 정유년, 수탉이 우는 소리. 꼬끼오! 내가 주인공~ 무슨 소리 주인공은 나야 꼬오옥! 찌거어즈오~ 알탉 쫓아낸 수탉들의 모이 쪼아먹는 소리

▲ 새해 사우님에게 드리는 덕담, 만수무강 그 이상 무슨 말 있겠습니까? 다리도 튼튼, 치아도 튼튼 팁으로 거시기는 팔팔...

▲ 사우회 재능봉사단 본격 시동, 의욕이 앞서면 과유불급이니 쉬엄쉬엄 하다보면 도랑치고 가재를 잡을 지어다.

김수웅 회장

〈新年辭〉

꼬끼오! 웃어다오

옛 사람들은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액이라 하여 이를 막기위해 닭 그림, 벽사 금계도를 문이나 집안에 붙였다고 합니다. 수탉이 울고 새벽이 열리면 빛을 싫어하는 잡귀들이 도망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제발, 나쁜 일 일으키는 잡귀들 얼씬 거리지 말아라!' 사우 여러분이나 저나 이심전심일 것 입니다. 꼬끼오! 정유년 새 아침, 수탉 울음소리가 여느 때보다 기운차게 들리니 함께 기대를 해봅시다. 지난 해는 사우회 창립 10주년 뜻 깊은 결실의 해를 가졌습니다. 올해는 이를 바탕으로 다시 한 번 재도약을 위한 시작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우회의 안정적 재정 자립기반의 길을 찾아 나서겠습니다. 이는 곧 사우회 미래 입니다.

사우들과 함께 힘을 합하면 못 이룰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우회 재능봉사단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 문화콘텐츠 관련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동호회연합으로 가진 백두산 등정은 정말 잊지 못할 감동이었습니다. 올해도 이 천지의 기운의 맥을 이어 왕성한 동호회 활동 펼치시기바랍니다. 사우회의 자랑거리 동호회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난해 그 시끄러움의 소용돌이는 끝나지 않았지만 2017년 새해, 새로움의 시작이기에 희망을 빌어봅니다.

사우여러분 올 한 해 이루고 싶은 것 다 성취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꼬끼오! 정유년 새 아침의 수탉의 기운찬 울음소리가 웃음소리로 들립니다.

겨울이 반가운 동호회

새해의 시작 얼음트레킹으로

▲ (사진) 지난 해 얼음 트레킹에 참가한 요산요수회 사우들

SBS 사우회 동호회는 겨울 휴면기가 없다. 사우회 요산요수 동호회가 새해 첫 시작의 문을 연다. 오는 14일 요산요수회 40여명의 사우들은 철원에서 열리는 한탄강 얼음트레킹축제에 참가해 얼어붙은 한탄강 협곡사이 6km를걸으며 현무암 주상절리와 설경을 감상한다. SBS 8개 동호회 가운데 올 첫 활동을 시작하는 요산요수회 한탄강 얼음 트레킹은 사우회 사우들의 한해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날 트레킹에 참가하는 사우들은 트레킹과 별도로 눈썰매와 팽이돌리기등 우리의 겨울철 전통놀이도 체험할 예정이다.

▲ 올해의 사우상 현일범 사우

▲ 올해를 빛낸 SBS맨 김상진 팀장

건강한 콘텐츠로 더 나은 세상 만들자

SBS DNA라면 못 이룰 것 없어

'26년전 SBS가 건강한 방송 건강한 사회의 기치를 내걸고 출범을 했는데 아직도 우리 사회가 혼탁한 것을 보면 우리의 역할이 미흡한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2016년 사우회 송년회장에서 윤세영 회장이 격려사를 통해 토로한 자성의 소리다. 지난해 12월6일 마포 가든 호텔에서 열린 SBS 사우회 송년회에 200여명의 사우들은 이같은 윤회장의 고해성사(?)를 공감하며 차분하게 송년의 밤을 밝혔다. 윤회장은 또 어려운 방송환경 여건 속에서도 '권한을 주고 책임을 다하는 시스템' 본부 책임 경영제로 시청률 향상과 경영개선 효과가 가시화 되고 있다며 경쟁력 제고가 SBS의 살길이라고 말했다.또 윤회장은 사우회가 자립기반의 기틀을 위해 여러사업을 시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SBS DNA를 물려받아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했다. 이날 김수웅 사우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느해 보다 뜻 깊은 사우회 창립 10주년 결실의 해를 뒤돌아보며 다시 힘찬 재도약의 비상을 위한 새해를 기원 했다. 또 이날 송년회장에서는 본사 뉴미디어 개발팀 김상진 팀장이 UHD TV시대 기술개발 공로로 올해를 빛낸 SBS맨으로 사우회 현일범 사우가 올해의 사우상을 각각 받았다. 이어 정상일 사우가 연출한 2부 축하 행사는 SBS 아나운서 출신 성악가 소프라노 윤지영, SBS 스타킹 프로그램이 배출한 쓰리 테너, 박영호 사우의 색소폰 연주로 송년회의 밤을 환하게 밝혔다.

박준영 사우 시작하고

살만치 살았는데도 변변히 한 일도 없고, 남의 말이나 받아 적고, 할 말도 없고, 딱히 내 주장도 없다. 남의 글에 밑줄이나 짜아악 긋고, 시간이나 메꾼다 배울만큼 배웠는데도 여문 것도 없고, 할 것도 별로 없다 내 인생이 없는 죽정이 이력서다 막판에 허한 가슴을 다독이려 시라는 걸 쓰는데.... 박준영 사우가 이런 중얼거림으로 시집 '중얼중얼, 간다' 를 펴냈다. '도장포에 사랑이 보인다' '장안에서 꿈꾸다' 등 이미 시집을 출간한 바있는 박사우는 이번 5번째 시집을 내고 비로소 시인이라는 명함을 내밀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 시집의 추천 해설을 쓴 가천대교수 이만식 시인은 이시집을 읽은 박준영의 독자가 서해바다나 동해바다에 가서 기존의 바다가 아닌 반쯤 기울어진 바다를 보게 된다면 박준영 시인의 중얼중얼을 새로운 언어표현방식으로 받아 들일 수 있고 의미 있는 시인이 될 것이라는 평을 했다. 이번 시와세계서평에 실린 중얼중얼 시집은 박사우가 틈틈이 사우회 행사 때마다 사우들에게 나누어준 시를 포함해 100여편의 시를 담고 있다. 박사우는 시를 쓴다는 일이 쓸개를 물고 웃는 얼굴을 지으며 가는 길이라며 이렇게 중얼거리고 가는 나를 시인이라고 불러주는 나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계속 자신의 인생여백에 시를 채워 나갈 것이라는 열정을 보였다.

엄광석 사우 달려내고

우리 생활에 달력이 없었으면 어떻게 될까? 독일의 고전 문헌학자 외르크 뤼푸케 교수는 그가 쓴 시간과 권력의 역사라는 책에서 달력은 인간생활을 지배하고 있다. 농경시대도 그랬지만 달력이 고속도로를 막히게 하고 휴식을 강요하게 하는 등 '달력은 꿈쩍도 않고 군림하는 지배자다' 라고 단언하고 있다. 엄광석 사우가 이같이 군림하는 지배자를 지배하기 위해 2017년 정유년 새해 달력을 제작 했다. 엄사우가 수년 동안 그린 유화 작품을 한데 모아 제작한 달력이라 그 뜻과 가치가 남다르다. 이번에 달력에 담은 그림은 해마다 명사초청 전시회에 출품 되어 좋은 평가를 받은 작품 '정선의 겨울' 등 12편이다. 2001년 부터 취미로 시작한 엄사우의 유화는 이미 2006년 대한민국 미술대전에 입선으로 인정을 받았고 매년 전시회를 여는 등 16년 동안 그의 그림 세상을 펼치고 있다. 화풍의 변화를 추구하는 대열에 끼지 않고 옛날 전통방식의 사실주의 기법을 고수하는 엄사우의 그림을 두고 미술 평론가들은 우리의 잃어버린 향수를 떠올리는 마력이라고 평하고 있다. 엄사우는 500개를 만든 달력이 동이 날 정도로 반응이 좋아 기분은 좋은데 시대가 만들어버린 미스프린트를 발견하고 씁쓸한 마음이 든다고 했다. 12월 20일 대통령 선거일 동그라미를 빨갛게 표시했는데.....

www.mediacreate.co.kr (02) 6262 – 2800

SBS Media Group

혼자 가면 빨리 갈 수는 있지만
함께 가면 더 멀리 갑니다

모두와 함께 가는 미디어 세상– 미디어 크리에이트가 만들어 갑니다.
단순한 매체 대행을 넘어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미디어 서비스, 혁신형 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까지
고객과 방송사는 물론 시청자, 우리 사회가 함께 발전하는 따뜻한 미디어 세상을 열어갑니다.

Grow up together

미디어 크리에이트
MEDIACREATE

미디어 크리에이트는 국내 최초 민영 미디어렙으로서 TV를 비롯한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을 바탕으로 최적의 미디어 마케팅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신년기획〉 – UHD TV 방송시대 개막

꿈의 영상을 실현하다

글 / 홍영락 교수(동아방송예술대)

다매체 다채널의 방송시장은 갈수록 경쟁이 치열하다. 금년 2월 지상파는 위기일수록 빛나는 존재감의 출발을 알린다. SBS가 그 첫 테이프를 끊는 한국방송 UHDTV 시대의 개막이다. UHD 방송은 해상도가 최소 4배에서 16배 더 높은 초고화질, 다채널 오디오, 넓은 시야각 등을 특징으로 하는 TV이다. 특히 지상파 UHD 방송환경에서는 그동안 묵은 과제인 수신환경의 개선, 재난과 안전정보의 원활한 고지, IP기반의 양방향 맞춤형 서비스 등의 부가서비스, 이동 간 송수신의 구현이 가능해질 획기적인 최첨단 TV시스템이다. 한마디로 지상파 UHDTV는 시청자들에게 세계최고의 고품질 화질을 365일 무료로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지상파 UHD TV가 세계최초로 도입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방송계는 꿈의 지상파 UHD TV로 명명되기도 하며, 그 만큼 자부심도 크게 가질 필요가 있다. 정부는 평창동계 올림픽 개막 1년 전인 2017년 2월에 수도권부터 우선 도입하여, 2021년에 전국방송을 완성한다는 원대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상파 UHD TV 도입은 어디서나, 모든 국민이 방송 시청을 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과 선택을 충족할 수 있는 시청자 공익성에 역점을 두고 있는 데에 그 의미가 더 깊다. 또한 DTV전환 시 실패했던 직접 수신율을 끌어올려, 소득격차 없이 실감형 고품질 콘텐츠를 모든 시청자가 향유할 수 있는 기반 확보도 병행하고 있다. 우수한 콘텐츠를 한류콘텐츠로 확산시키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절실한 지상파 방송사는 단계별 시설투자에 대한 재원마련이 시급한데,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협력이 있어야만 다양한 산업분야에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신 성장 동력으로 지상파 UHDTV가 제 역할을 할 것이다. 이같은 다양한 노력의 결과로 시청자 권익 강화 측면에서 세계최초 도입이라는 긍지와 함께 저렴하게 디지털 고품질 콘텐츠를 모든 계층에게 혜택을 주면서, 사회계층 간 정보격차를 줄여주는 방송의 기본적 책무를 다하는 차세대 방송 시스템으로서 위상이 확보될 수 있다.

SBS가 이끌어낸 표준화 기술

글 / 최겸수 사우

2017년 2월이면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지상파 UHD(초고화질) TV방송의 본방송이 시작된다. UHD TV방송은 2013년1월 프랑스의 유텔셋(Eutelsat)이 위성을 이용한 4K UHD전용채널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우리나라를 비롯 여러나라에서 위성과 인터넷 IPTV, 케이블 TV 등 다채널 매체에서 일부채널로 UHD TV를 실시하고 있다. 2000년대 중반부터 방송사는 700MHZ대역으로 차세대 방송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 하였으나, 통신사들의 조직적인 반대와 정부의 낮은 인식으로 방송주파수 할당과 방송표준의 결정을 10년 넘게 끌어 오다, 2015년 6월에야 700MHZ대역의 일부인 30MHZ 채널 52에서 56까지 5개채널만 방송사에 배정하게 되었다. 방송표준은 TTA(한국정보통신 기술협회)에서 SBS 의 주도로 표준화 작업을 이끌어 2016년 7월에 인터넷방 연동 서비스에 유럽식 DVB-2 방식보다 우월한 ATSC3.0방식을 한국의 UHD TV 표준으로 확정지었다. SBS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사가 UHD TV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명한 화질과 고품질 다채널 음질에 대한 시청자 욕구증가에 대응할 수 있다. 둘째 디스플레이와 방송장비, 방송 송수신기술이 발전하고 있으며, 대화면 수신기 가격도 낮아져 대화면 수신기의 보급이 늘고 있다. 셋째는 각국이 차세대 방송 시장선점을 위해 치열한 기술경쟁을 벌이고 있다. 넷째로 ATSC3.0방식의 인터넷 프로토콜 데이터 전송기능을 이용한 다양한 방송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양방향 서비스와, RF로 한 채널을 보내고 IP망으로 VOD등 다양한 콘텐츠를 보낼 수도 있고, 이동수신이 가능하여 휴대폰에서 수신할 수도 있다. 현재까지 방송사의 본방송 준비는 SBS가 가장 빨라, 관악산등 5개 송신소에 송신기를 설치중이며, 중계차 1대도 도입하였고, 주조정실과 송출시설도 2월 본방송에 맞추는데 무리가 없는데 타사의 준비는 늦어진다고 한다. 향후 UHD TV방송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UHD TV방송과 수신기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본다. 또 우리나라 가전사들의 수출시장의 경쟁력과 판매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되며, 이와 함께 양질의 한류 콘텐츠의 세계시장 확대와, 이를 통한 한류상품 수출도 기대된다.

2017 사우 五問 五答

(1) 내가 선정한 2017년 사자성어
(2) 올해 만사 제쳐놓고 이루고 싶은 것은
(3) 나만의 건강 노하우
(4) 나이와 상관 없이 하고 싶은 것은
(5) 사우회서 백만원의 보너스를 받는다면

– 이기석 사우
*극난극복
*전국 역사 유적지와 맛집 여행
*헬스트레이닝 절제된 식생활
*취미생활 강습회 참여
*해외봉사단체 기부

– 장동욱 사우
*정의실현(正義實現)
*아트 프로그램 런칭
*햇빛 아래서 걷기
*걸어서 무전 여행
*선후배 모시고 막걸리파티

– 박건삼 사우
*음수사원(飮水思源) 근원을 잊지말라
*해파랑길 완주(오륙도에서 고성 통일전망대 해안길 따라)
*걷고 막걸리 마시기
*킬리만자로등정
*번개 미팅해 남산길 걷고 장충동 족발집에서 다 쏜다

– 구자걸 사우
*개과불린(改過不吝) 잘못을 고치는데 인색하지 말라
*그놈에 담배와 술이뭔지 끊고 안마시기
*매일걷고 하루종일 걷고 꿈에도 걷는다
*기타연습해 사우회 송년회때 연주하기
*현업 때 떼먹은 보너스 준다며 마누라한테 폼잡고 싶다.

– 이시권 사우
*걸생누사 걸으면 살고(生) 누우면 죽는다(死)
*로또 1등 당첨되기 당첨금은 사우회관 건립
*숨쉬기 운동 숨이 멈추지 않으면 인생백세 틀림 없기에
*6대주 구석구석 여행하기, 마눌님 손 꼭잡고
*절반은 사우회관 건립비 50%는 해외여행 경비로

– 공영화 사우
*만파식적(萬波息笛) 어렵고 혼란한세상 국민의 근심을 해결할 피리가 필요하다
*배낭메고 김삿갓 처럼 전국 도보
*맨손들고 왔으니 맨손체조
*무용을 배워 바츨라프 니진스키처럼 되고 싶다
*봉짱 로또 투자 당첨되면 복지재단 설립

SBS社友漫評

2017년 丁酉年 • 희망의 새벽을 깨우리라

◇경조사

축하합니다.

서인준 장남(10/16)
허인구 장남(10/24)
김희남 장남(10/30)
최명우 차녀(11/7)
양문규 차녀(12/5)
이상규 장남(12/8)

애도합니다.

배철호 빙부상(9/27)
김 돈 빙모상(11/7)
김상용 빙부상(11/10)
김세웅 모친상(11/15)
강찬용 빙모상(12/15)

◇회비내신분

연회비(10월~12월)
김윤경 박상준 이동훈 조용대

종신회비
김상용 목준균 양근배 이민주
이영혜 황영찬

◇회비안내

(종신회비로 납부시 연회비를 납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연회비 : 30,000원 종신회비 : 300,000원

우리은행 계좌번호
회 비 납 부 1006-901-277104
경조사납부 1005-101-255925
협 찬 회 비 1005-001-954097